

극지해소식

No.152

31 Aug

www.kmi.re.kr

발행인 조정희 원장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김주형 전문연구원, 김지영 전문연구원, 박예나 전문연구원
엄단비 전문연구원, 정다현 연구원

담당자 정다현 051)797-4747 (dhj82@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WMO | WMO 의장, 기후위기 대응 핵심으로 북극 중요성 강조 2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OBBBA 법안, 알래스카에 대규모 투자 청신호 4

미국 | 북극연구위원회, '북극이 글로벌 안보 결정할 것' 6

노르웨이 | 새로운 북극 전략, 8월 달에 발표한다. 7

그린란드 | 그린란드 의원, 북극 정상 회의에서 자치권 강조 8

아이슬란드/노르웨이 | 아이슬란드-노르웨이, EU 가입 재검토 10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 아르한겔스크, 북극항로 첫 중국 선박 입항 11

러시아 | 야말-네네츠 자치구, 옴스키 부두 개발 회의 12

러시아 | 국제선도개발구역(MTOR) 제도 북극권까지 확대 전망 13

러시아 | 무르만스크, 크루즈 열차노선 개통으로 북극관광거점 도약 14

캐나다 | 테비에 조선소, 미국 쇄빙선 건조 계약 입찰 참여 15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 북극 연구 프로젝트(ArCS III) 웹사이트 일반에 공개 16

인도 | 러시아와 북극 에너지 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18

남극 소식

러시아, '남극에서 석유 5110억 배럴 발견' 논란 확산 20

극지의 창(窓)

협력과 인재 양성의 요람, 제11회 북극 아카데미 성료 22

북극과 사람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원주민 지식이 중요한 이유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KMI 일반사업인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WMO/
국제기구

글 정다현 연구원
dhj82@kmi.re.kr

출처: https://www.umu.se/en/news/global-climate-issues-through-an-arctic-lens_12131710

WMO 의장, 기후위기 대응 핵심으로 북극 중요성 강조
(2025. 8. 21.)

〈그림〉 WMO 압둘라 알 만도우스 의장(왼쪽에서 4번째) 외, 스웨덴 우메오 대학 교수진



자료: https://www.umu.se/en/news/global-climate-issues-through-an-arctic-lens_12131710

세계기상기구(WMO) 의장이자 아랍에미리트 기상청장(Director General of the UAE National Centre of Meteorology)을 겸임하고 있는 압둘라 알 만도우스(Abdulla Al Mandous) 박사가 스웨덴 우메오 대학(University of Umeå) 북극센터를 공식 방문하였다. 우메오 대학은 오랜 기간 국제기구와의 협력 속에서 북극 기후와 환경 연구를 선도해왔다. 이번 방문은 WMO가 북극을 기후위기 대응과 해결의 핵심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우메오 대학 북극센터 연구진은 영구 동토층과 토양의 수문학, 우주기상, 생태계 모델링, 원주민 생계 등 폭넓은 주제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번 모임에는 사미 이사회(Sámi Council), 스웨덴 극지연구사무국(Swedish Polar Research Secretariat), 유럽 극지위원회(European Polar Board)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북극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국제극지연감(International Polar Year) 및 에미레이트 극지 연구 프로그램(Emirates Polar Research Programme)과 같은 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WMO/
국제기구

우메오 대학 북극센터 키스 라르손(Keith Larson) 센터장은 “세계 기후·기상 분야의 선도적인 기관들이 우리 대학을 방문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연구 거점을 넘어 지속가능한 북극을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파트너(natural partner)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또, 그는 WMO 방문이 학계와 국제기구, 정책 결정자 사이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북극 센터가 앞으로도 북극의 환경 변화와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주요 접점(primary contact point)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MO의 이번 방문은 우메오 대학이 단순히 연구기관을 넘어, 과학·정책·사회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북극 연구 허브(hub)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방문하여 논의를 나눈 것은 우메오 대학 연구의 국제적 신뢰성과 전략적 가치를 방증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 같은 만남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지식과 네트워크는 북극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기후 의제(global climate agenda) 전반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서 북극 연구의 핵심적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https://www.highnorthnews.com/en/what-one-big-beautiful-bill-act-entails-arctic>

OBBBA 법안, 알래스카에 대규모 투자 청신호 (2025. 8. 6.)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알래스카주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에 담겨 있는 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 방안에서 알래스카주는 여러 부문이 면제되는 등의 예외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핵심 의제를 구성하는 세금 및 지출 정책을 담은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 법률
- 부유층 대상 대규모 감세 및 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을 포함되었으며, 알래스카주는 복지 프로그램 삭감 항목 다수에서 제외
- 이 법안은 10년간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증가시키고, 세수 약 4조 4,600억 달러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
- 1,09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할 수 있음
-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이번 법안을 통해 미 해안경비대는 약 250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 중 90억 달러가 해안경비대의 북극 활동 강화사업에 배정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양 투자다. 이 법안은 최대 3척의 새로운 중량 쇄빙선(new heavy Security Cutters) 건조에 43억 달러, 3척의 중형 극지 쇄빙선(Arctic Security Cutters)에 35억 달러, 10척의 경량 쇄빙선에 1억 8,6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노후화된 쇄빙선 함대를 재활성화하는 역사적 규모의 쇄빙선 투자이다. 이 투자는 57척의 세계 최대 쇄빙선 함대를 보유한 러시아와의 격차를 줄이고, 북극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존재감에 대응하기 조치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25년 만에 첫 번째 극지 쇄빙선을 인도 받았다. 북극 석유 작업용으로 건조된 아이비크(Aiviq)호는 USCGC Storis로 개명되어 알래스카 주노에 모항을 둘 예정이다. 이 선박은 지난달 첫 항해를 떠났는데, 건조된지 50년이 된 폴라스트(Polar Star)와 25년 된 힐리(Healy)호와 함께 운용된다. 이 같은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 해안경비대는 적절한 연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8~9척의 극지 쇄빙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이번 법안은 알래스카 기반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다. OBBBA는 Clear Space Force 기지의 장거리 판별 레이더, 쉘야(Shemya)의 코브라 데인(COBRA DANE) 레이더 등 레이더 기지 강화에 19억 7,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알래스카 군사기지의 주택, 육아, 의료 서비스에 90억 달러, 알류산 열도의 아닥 해군 항공기지(Adak Naval Air Station) 등 기존 북극 인프라 탐사 및 개발 지원에 1억 1,500만 달러, 아일슨 공군 기지(Eielson Air Force Base)와 엘멘도르프-리차드슨 합동 기지 작전 지원을 위한 제공권 확보 등에 90억 달러를 할당했다. 알래스카 사령부가 참여하는 확장 군사훈련을 포함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와 290억 달러 조선 조항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알래스카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법안에서 북극 국립 야생 동물 보호 구역(ANWR), 알래스카 국립 석유 매장지(National Petroleum Reserve-Alaska), 쿡 인렛(Cook Inlet) 등 수천만 에이커에 걸친 임대 판매를 의무화했다. 또한 알래스카로 직접 돌아가는 로열티 금액을 증가시켰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 트로이 부파드(Troy Bouffard)박사는 해안경비대가 법안에 명시된 조항의 지원을 받는다면 놀라울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산 전문가들은 OBBBA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4조 4,600억 달러의 세수 감소와 3조 달러의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09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8/20/arctic-security-at-stake-u-s-commission-outlines-urgent-research-priorities/>

북극연구위원회, ‘북극이 글로벌 안보 결정할 것’ (2025. 8. 20.)

미국 북극연구위원회(U.S. Arctic Research Commission, USARC)는 북극이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안보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미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북극을 위한 연구 필요성 (Research Needs for a Secure and Prosperous Arctic)’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미국 정부의 차기 5개년 북극 연구 계획을 안내하기 위한 연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USARC는 ‘북극지역은 미국의 국토방어, 미국 국가 주권보호, 미국의 국방약속 이행에 중요하다’며 ‘북극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이 경쟁국과 적국에 대해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이 자원을 투입해야 할 4가지 핵심 연구 영역으로 군사, 지역사회, 에너지, 경제를 제시했다. 또한 군사 인프라 강화가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대역 접근 확대부터 급속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주민을 지원하는 영구동토층 해빙, 침식, 산불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된다. 알래스카 원주민의 지역사회의 지식과 리더십과 결합된 이러한 발전은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압력이 지역을 재편함에 따라 회복력을 구축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USARC는 알래스카의 미래가 재생에너지로부터 소형 원자로까지 전력원 다각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로 해양 환경이 변화하며 약 6만 명을 고용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어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드론, 위성 슈퍼컴퓨팅, 센서 소형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이 북극 관측과 운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북극에서 군사적·상업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이 쇄빙선을 건조하면서 러시아와 훈련을 실시하며 새로운 자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북극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국제적 리더십 역할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s-new-arctic-strategy-will-be-launched-month>

새로운 북극 전략, 8월에 발표된다. (2025. 8. 12.)

노르웨이 정부가 이달 말 키르케네스(Kirkenes)에서 새로운 북극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Espen Barth Eide) 외무장관(노르웨이 노동당)은 스웨덴 및 핀란드와의 협력이 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이데 장관은 “이번 북극 전략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춰 북극 정책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며, 지난 몇 년 간 벌어진 지정학적 변화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생긴 협력의 기회들을 포괄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기존 북극 전략은 2017년 솔베르그(Solberg) 내각 당시 발표되었다. 이번 전략은 올해 초 이미 예고된 바 있으며, 이달 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에이데 장관은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기업, 사회, 인프라, 지식기관을 발전시키는 일은 오슬로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도 깊이 관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 살고 싶게 만들고, 머무르게 하며, 북노르웨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반”이라며 “이 지역은 최근 안보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극 전략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에이데 장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로 인해 바렌츠 협력(Barents cooperation)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같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같은 전쟁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북극 지역이 동일한 안보 공동체 내에 놓이게 되면서, 단지 군사·안보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공동 인프라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노르웨이의 새로운 북극 전략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www.highnorthnews.com/en/arctic-encounter-summit-work-us-not-over-us-says-greenlandic-politician

그린란드 의원, 북극 정상회의에서 자치권 강조 (2025. 8. 4.)

그린란드 의회 쿠노 펜커(Kuno Fencker, 나레라크당) 의원은 최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정상회의(Arctic Encounter Summit) 패널토론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린란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방식을 강조했다. “우리는 외부 세력이 우리 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다변화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그린란드 국민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 지정학의 중심에 선 그린란드(Greenland in the center of Arctic geopolitics)’라는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는 펜커 의원 외에도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의 마즈 크비스트 프레데릭센 집행이사, 비영리 단체 아메리칸 데이브레이크(American Daybreak)의 창립자 톰 단스가 참석했다. 그린란드 정부의 공식 대표는 이번 토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펜커 의원은 “이제 우리는 세계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며 “그린란드는 미국도, 덴마크도 병합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 국가로서 수산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 관련된 국제기구에도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극경제이사회 마즈 크비스트 프레데릭센 집행이사는 “이번 사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덴마크 왕국 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외교 위기로 평가된다”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데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이 독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차이는 속도와 방식에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조적인 도전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현재 약 5만 6,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2050년에는 4만 7,0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4개 소규모 지역사회 중 17곳의 인구는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그린란드 경제가 기본적으로 덴마크의 보조금(블록 그랜트)과 수산물 수출이라는 두 축 위에 세워져 있어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집행이사는 이어서 “미국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자금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광과 수산업 분야는 규제가 강해 진입 장벽이 높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덴마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광산, 에너지, 군사, 인프라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정부는 광산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채굴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참여에도 개방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15년간 광산 분야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의 아키 마틸다 회에그-담(Aki-Matilda Høegh-Dam) 의원도 “그린란드는 협력을 환영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북극권 곳곳에서, 특히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원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는 종종 성장을 약속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과 외국 소유권만을 남긴다”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장기적 가치 창출,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커 의원은 “그린란드는 인구는 적지만, 영토는 광범위한 외딴 지역이다. 수산업과 덴마크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 다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규제가 지나쳐선 안 되지만, 원주민을 보호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그린란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외부 세력이 우리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위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라(Work with us, not over us).’”라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노르웨이, EU 가입 재검토 (2025. 8. 19.)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비판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린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 가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비록 이들 국가의 가입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전략적 기회로 보고, 정치적 기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EU 가입을 기다리는 국가는 12개국”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보좌진이 “공식 후보국은 코소보를 포함해 10개국”이라며 정정을 요청했지만, 위원장 측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을 정치적 메시지로 주고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북극이 노르웨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후 북극 정책은 크게 발전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현실 속에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린란드는 이미 유럽경제지역(EEA)과 쉥겐조약 등을 통해 EU와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한 회원국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10년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지만, 2015년 중단했다. 노르웨이는 두 차례 국민투표에서 모두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그린란드는 1985년 어업권 문제로 유럽공동체(EC)에서 탈퇴했다.

최근 들어 이들 국가에서는 EU 가입이 ‘안보를 위한 선택’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리스본 조약 제42.7조는 회원국 간 상호방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나토의 제5조보다도 강력한 방위 조항으로 평가된다.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EU는 더 이상 구속이 아닌 ‘보호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www.eurointegration.com.ua/eng/news/2025/08/19/7188927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1: <https://strana-rosatom.ru/2025/08/25/pervoe-sudno-pribylo-v-rossii-ju-po-marshr/>

출처2: <https://rosatomnewsletter.com/2024/08/29/arctic-motion>

아르한겔스크, 북극항로 첫 중국 선박 입항 (2025. 8. 27.)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에 올해 첫 번째 ‘북극 익스프레스 No.1’ 항로를 따라 중국에서 선박이 입항했다. 올해 첫 항해는 중국의 뉴뉴шип핑(NewNew Shipping)사의 컨테이너선 뉴뉴폴라베어(NewNew Polar Bear)가 맡았다. 이 선박은 자동차 부품, PVC 필름, 철강이 실린 497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귀항 시에는 러시아 화물을 싣고 돌아갈 예정이다. 이 선박의 항해 경로는 아르한겔스크에서 출발해 상하이 및 텐진을 잇는 복합운송(Multimodal) 항로를 따를 예정이다. 뉴뉴폴라베어 호는 7월 16일 상하이 항만에서 출항해 8월 15일 아르한겔스크에 도착했다. 이번 항해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할 경우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르한겔스크에는 중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20회 입항할 예정으로, 이는 2024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아르한겔스크 주 알렉산드르 치볼스키 주지사는 “우리가 중국 파트너들과 함께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효율성을 입증했고, 러시아를 중국 항만과 짧고 신뢰할 수 있는 북극해 항로로 연결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NewNew Shipping은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아르한겔스크 항만 확장과 로사툼(Rosatom)과 협력한 ‘Arc7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북극 익스프레스 No.1’ 항로는 철도와 해상을 연계한 복합운송망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르한겔스크까지 철도로 화물을 운송한 뒤, 북극항로를 거쳐 중국 항만으로 연결한다. 이 운송 경로는 약 1만 3,200km에 달하며, 소요 시간은 20~25일로 기존의 다른 우회 항로보다 물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철도 구간은 약 1,200km, 해상 구간은 약 6,600해리에 이른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industrialnyy_park_obs_koy_prichal_planiruyut_integrirovat_v_proekt_portovoy_infrastruktury_yanao.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야말-네네츠 자치구, 옅스키 부두 개발 회의 (2025. 8. 26.)

러시아 야말-네네츠 자치구(YANAO) 수도 살레하르트(Salekhard)에서 ‘옅스키 부두 개발’ 관련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드미트리 아르투호프(Dmitry Artyukhov) 야말 네네츠 자치주 지사,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대통령 보좌관, 아르템 조가(Artem Zhoga) 대통령 전권대표(우랄 연방관구), 아나톨리 세리셰프(Anatoly Seryshev) 대통령 전권대표(시베리아 연방관구)가 참석했다.

아르투호프 주지사는 “산업단지 ‘옅스키 부두(Обской причал, Ob Pier)’ 개발과 이를 관내의 강,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야말과 기단(Gydan) 지역 신규 자원 매장지 개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통해 물류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니콜라이 플라토노비치(파트루셰프)에게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참석자들과 함께 ‘북극 연구센터(Научны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Арктики, Scientific Center for the Study of the Arctic)’도 방문했다. 이곳에서야 말 과학자들이 지역 영구동토층 지도(permafrost map)를 제작하고, 토양 및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연구는 급격히 변화하는 북극 환경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러시아 북극권 국가이익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북극항로 개발과 해양 사고 구조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오브-이르티시(Ob-Irtysh) 유역은 주요 국제 무역 경로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 지역의 개발은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물류 경로 창출에도 기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야말과 기단 지역의 자원 개발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북극권 물류와 환경적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industrialnyy_park_obs_koy_prichal_planiruyut_integriruvat_v_proekt_portovoy_infrastruktury_yanao.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국제선도개발구역(MTOR) 제도 북극권까지 확대 전망 (2025. 8. 26.)

북극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물류 회랑을 확장하기 위한 러시아의 국제선도 개발구역 제도(MTOR)가 북극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보로트니코프(Alexander Vorotnikov)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립경제행정아카데미(RANEPА) 부교수이자 북극개발 프로젝트 사무국 전문가위원회 코디네이터는 최근 한 회의에서 북극에 국제선도개발구역(International Territories of Advanced Development, MTOR)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극에는 MTOR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러시아 북극권(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ZRF) 지역의 발전과 북극 항로를 트랜스아틱 운송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 TTC)의 일부로 육성하는데 핵심적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없다면 AZRF 전역과 인접 지역의 발전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극에서 MTOR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TOR 발전을 위해서는 폭넓은 참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브릭스(BRICS) 국가들을 포함해야 하고, 아울러 브릭스 파트너 국가들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파트너의 참여는 TTC 활용과 화물 환적·운송에 연결된 협력 국가 목록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i Chekunkov)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극 지역에도 MTOR 제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극동 지역에서의 MTOR 설립 관련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MTOR 입주 기업(resident)에 대해 법인세와 관련해 특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연방 예산으로 귀속되는 법인세 부분은 10년 동안 세율 0%가 적용되며, 각 연방 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지역 예산으로 귀속되는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gov-murman.ru/info/news/552091>

무르만스크, 크루즈 열차노선 개통으로 북극 관광 거점 도약 (2025. 8. 22.)

오는 10월부터 러시아 수도와 ‘러시아 북부(Russian North)’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열차 노선 “북극 오로라를 향해(К северному сиянию)”가 운행을 시작한다. 크루즈 열차는 모스크바 – 페트로자보츠크 – 무르만스크 – 벨로모르스크 – 볼로그다 – 모스크바 구간을 따라 운행된다. 첫 운행은 2025년 10월 31일 출발 예정이며, 일정은 5일 4박으로 구성된다.

무르만스크주 관광위원회 마케팅·홍보부 데니스 말체프(Denis Maltsev) 부국장은 “오늘날 러시아 북부는 진정한 러시아를 알고자 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무르만스크주는 감동을 주는 자연, 풍부한 역사,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번처럼 편안한 관광 노선은 무르만스크주와 인근 도시들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 여행 상품은 러시아철도공사(RZD) 공식 웹사이트(rzd.ru)나 여행회사(FPK)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종합 관광 패키지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에는 각 도시(페트로자보츠크, 무르만스크, 벨로모르스크, 볼로그다)에서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는 일정은 물론, 필요 교통편과 식사가 포함된다.

한편, 무르만스크주에서는 이미 2025년 북극 오로라 시즌이 개시됐다. 이 시즌은 내년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무르만스크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높고, 인기 있는 오로라 관측지의 하나로 꼽힌다. 관광객들은 무르만스크주 관광 포털에서 북극광 지수 예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안내 센터를 통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북극 크루즈 열차 노선 개통은 무르만스크를 중심으로 한 북극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8/20/canadas-davie-sees-us-shipyards-as-key-to-winning-icebreaker-contract/>

데비에 조선소, 미국 쇄빙선 건조 계약 입찰 참여 (2025. 8. 20.)

캐나다 데비에 조선소(Davie Shipbuilding)의 모회사인 브리티시 이노세아 그룹(British Inoce Group) 알렉스 바이스필드(Alex Vicefield) 대표가 8월 20일 미국 행정부의 쇄빙선 건조 계약에 입찰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바이스필드 대표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데비에 조선소에서 “미국이 어떻게 진행하고 싶어 하는지는 논의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데비에 조선소는 지난 6월 갤버스턴(Galveston)과 포트 아서(Port Arthur)의 조선소 인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와 핀란드가 쇄빙선 선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극지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증가하는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86억 달러 이상을 쇄빙선 건조 계획에 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세 국가는 지난해 북극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아이스 팩트(Ice Pact) 협정에 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캐나다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협정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관세가 미국에 일자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안경비대는 현재 보유한 3척의 쇄빙선 함대에 북극 대응 쇄빙선 8~9척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지난 3월 캐나다 시스팬 조선소(Canadian Seaspan Shipyards)와 데비에 조선소에 새로운 중쇄빙선 2척을 발주했다. 캐나다 해안경비대는 현재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이 새로운 선박은 우리의 북방 무역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8척의 쇄빙선 선대를 새롭게 건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형 쇄빙선 건조는 2026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데비에 조선소 대표는 “핀란드 헬싱키가 쇄빙선 분야의 리더라는 인식이 있다. 미국은 쇄빙선 선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되었고, 쇄빙선과 같이 특수하고, 건조하기 어려운 선박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데비에 조선소는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에서 캐나다에서 발주한 3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139m 폴라 맥스(Polar Max) 쇄빙선 건조를 시작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북극 연구 프로젝트(ArCSIII) 웹사이트 일반에 공개 (2025. 8. 8.)

일본 국립극지연구소,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홋카이도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권 연구 강화 프로젝트 ‘ArCSIII(Arctic Challenge for SustainabilityIII)’가 지난 4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8월 8일에는 연구과제와 연구기반 활동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영어판 웹사이트는 9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림 1] ArCS III 웹사이트



자료: <https://www.arcs3.nipr.ac.jp/news/1398/>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활동으로는 조사 활동 및 킥오프 워크숍 등이 들어 있다. 우선,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알래스카대학교 페어뱅크스 캠퍼스 국제북극권연구센터(International Arctic Research Center, IARC)를 방문하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극지연구소와 ArCSIII 참가자들은 대기, 설빙, 산림, 해양 포유류, 과학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옵서버 국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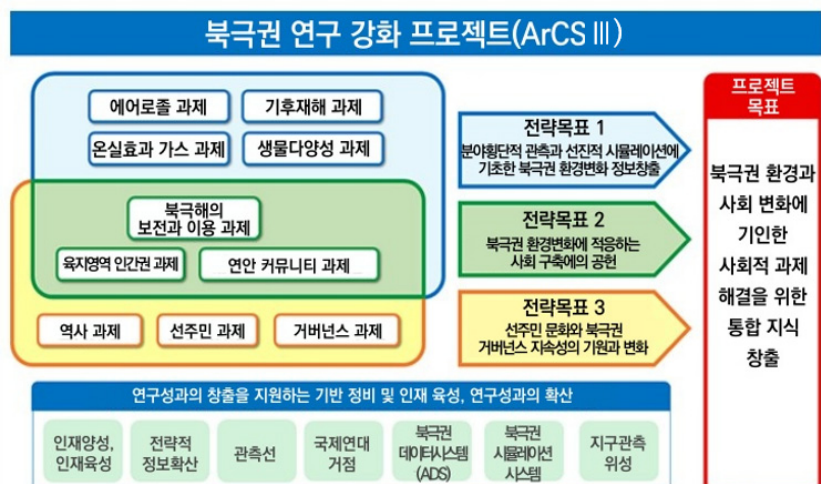


일본

이어 6월에는 ArCSIII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 기관인 국립극지연구소에서 ArCSIII 킥오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3대 전략 목표와 7개 연구 기반, 그리고 10개의 연구과제가 소개되었으며,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 커뮤니티 과제와 관련하여,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양, 빙하·빙상, 육역, 인문사회 등 다양한 연구팀이 그린란드 북서부 카나크 지역에서 수행한 조사·관측 결과를 게시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흑등고래 및 긴수염고래의 행동 관찰과 수중 마이크를 통한 고래 울음소리와 해양 환경음의 녹음 등 다각적 연구 활동을 공유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ArCS III 구성



자료: <https://www.nipr.ac.jp/aerc/topics20250405.html> 및 극지해 소식 4월호

옵서버 국가 산업·경제



글 정다현 연구원
dhj82@kmi.re.kr

출처1: <https://www.globaltrademag.com/india-defies-us-tariffs-eyes-joint-arctic-energy-projects-with-russia/>

출처2: <https://www.eurasiantimes.com/india-rejects-u-s-pressure-strengthens-russia/>

출처3: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ndia-russia-agree-boost-trade-ties-after-foreign-ministers-meet-moscow-2025-08-21/>

러시아와 북극 에너지 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2025. 8. 22.)

〈그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오른쪽)과 인도 수브라마냐 자이산카르 외무장관(왼쪽)의 기자회견 모습



자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ndia-russia-agree-boost-trade-ties-after-foreign-ministers-meet-moscow-2025-08-21/>

인도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 정책에 반발하며, 러시아와의 북극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복합적으로 얹힌 국제 교역 질서 속에서, 인도가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을 지키고, 외교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인도와 러시아는 ‘25년 8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및 기타 자원 개발을 포함한 북극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북극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축소로 인해 신규 에너지 및 해상운송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를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역시 서방의 대러 제재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옵서버 국가 산업·경제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일부 인도산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조치는 8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도는 이러한 조치를 부당하다면서 가장 저렴한 공급처로부터 원유를 구매할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양국의 탄화수소 협력이 이미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를 심화시키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도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논의는 기존 양국 에너지 파트너십을 북극 차원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인도는 이미 러시아와 사할린 프로젝트 및 극동 에너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북극 대륙붕 자원 개발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북극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극항로(NSR)를 통한 운송은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20% 이상 항해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인도는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원유·가스 안정적 확보,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다층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순이다. 이러한 인도 전략은 자국의 외교적·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와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고, 국제협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극소식

러시아, 남극 해저에서 석유 5,110억 배럴 발견 논란
(2025. 8. 26.)

러시아가 최근 남극 해저에서 5,110억 배럴의 석유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웨델 해에 위치한 이 보호구역은 특히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의 지속적 영유권 주장이 치열했던 과거를 비추어보면,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정보는 영국 하원 환경감사위원회(UK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회의에서 공개되었으며,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국제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검증된다면, 이 발견은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발견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려진 석유 매장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지난 50년간의 북해(North Sea) 생산량을 10배 초과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가장 큰 석유 매장량 중 하나가 된다.

이 같은 매장량 발견은 과학 탐사라는 명목 하에 러시아 연구 원정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숨은 동기를 지적하며, 이러한 활동이 자원 추출 노력의 위장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1959년 남극 조약(Antarctic Treaty)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54개국이 승인한 이 조약은 군사 활동뿐만 아니라 남극에서의 상업적 자원 추출도 금지하고 있으며, 대륙을 평화와 과학 연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우려는 런던 로열 할로웨이 대학교(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의 지정학 전문가인 클라우스 도즈(Klaus Dodds) 교수가 부각시켰다. 토론에서 그는 수집된 데이터가 순수한 과학 연구보다는 자원 탐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자원 추출의 시작을 예고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점 더 긴장된 지정학적 환경과 연관지었다. 도즈 교수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 악화가 남극에서의 경쟁적 이해관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https://news.ssbcrack.com/russias-discovery-of-511-billion-barrels-of-oil-in-antarctica-sparks-geopolitical-tensions/>

남극소식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자신들의 활동이 남극 조약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데이비드 러틀리(David Rutley) 영국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일관되게 자신들의 조사 노력을 순전히 과학적인 것으로 묘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석유 탐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진파 연구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상업적인 의도를 암시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남극 조약은 지진파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 왔다. 최근 발견이 석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지질 구조와 일치하면서, 러시아의 진정한 동기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세계 강대국들은 남극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1957년 이후 5개의 연구기지를 건설했으며, 중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다섯 번째 기지를 개소했다. 또한 양국은 해양 보호구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서방 지원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으며, 이는 전략적 국익이 환경 보호 노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는 북극과 연안 매장량이 감소함에 따라 각국이 남극과 같이 미지의 지역을 탐사하는 자원 경쟁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희토류 원소, 그리고 잠재적 전략적 이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발견의 법적, 외교적 파급효과는 중대하며, 중첩된 영유권 주장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이 웨델해를 포함한 영국의 남극 영토(British Antarctic Territory)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던 반면,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그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남극의 어떤 영유권 주장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1959년 남극조약은 남극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극 조약의 시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협약 준수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이 없어 각국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상호 책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진정한 과제는 국제 사회가 조약 틀을 유지하려는 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지영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협력과 인재 양성의 요람, 제11회 북극아카데미 성료

차세대 북극 인재들이 한자리에 서다.

2025년 제11회 북극아카데미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북극아카데미’는 지금까지 해외 학생 198명과 국내 학생 188명 등 총 38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북극 국제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다.

북극 정책, 과학,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북극권과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북극대학연합(UArctic)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부산 KMI에서 3일간 집중 강의와 문화교류 활동을 시작으로, 부산 신항과 북항에서의 해양수산 현장 견학, 인천 극지연구소 방문을 통한 극지 연구 체험,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및 수료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제11회 북극 아카데미 개회식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이후 수년 만에 해외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진행되어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특히 올해는 해외 참가자 모집에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총 156명의 지원자 중 14명이 최종 선발되어, 7개 북극권 국가의 대학(원)생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전 일정에 참여하였다. 이는

북극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함께, 북극아카데미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다.

총 31명(국내 17명, 해외 14명)의 참가자들은 북극정책, 해운, 기후,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한국 문화 체험과 국내 유관기관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모든 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수료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100% 수료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와 프로그램 운영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저명한 국제 강사진과 국내 전문가 특별 강연

이번 아카데미는 해외 및 국내 저명한 북극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깊이를 더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북극 관련 국제 협력, 해운·환경·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올해 사업을 더욱 빛냈다.

특히,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등 북극권 국가의 대사들이 직접 참여해 각국의 북극정책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으며,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북극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극이사회 의장(Kenneth Høegh)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북극대학교(UiT), 노드대학교(Nord University) 등 유수의 북극 전문기관에서 활동 중인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극 지역의 경제·산업적 변화와 정책적 접근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외교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해양수산연수원, 고려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극과 조선, 과학기술, 해운, 자원개발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주요 강연은 북극을 기후변화, 경제적 기회, 안보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연에서는 북극이사회와 같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기반의 자원 관리, 원주민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북극항로(NSR)의 활용 확대, 극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별 전략이 소개되는 한편, 국제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도 비정치적 실무 협력과 청년 세대의 참여 확대를 통해 북극 거버넌스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 강연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폴라 코드(Polar Code)는 북극 및 남극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설계, 구조, 장비, 운항, 인력훈련 등 다양한 기준을 의무화하며, 극지 항해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 보호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항만 인프라, 연료의 친환경 전환, 위성 통신과 항법 시스템 개선, 선박 설계의 기술적 정교화 등 광범위한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강연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각국의 대응 현황도 함께 소개되었다.

더불어, 해양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없이 북극 공해에서 상업적 어업이 개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발효된 CAOFA(중앙북극공해자원보존협정)의 주요 내용과 국제 과학 협력 프로그램(JPSRM)의 추진 경과도 다루어졌다. 한국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극지 선박을 통해 북극 생태계 장기 관측과 협정 이행을 위한 과학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극의 환경 변화, 청색 경제(블루 이코노미)의 부상, 북극 해양관광 개발 등 복합적이고,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적 이해관계, 기술적 도전과제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들 주제가 단순한 해양 문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구적 과제라는 점이 강조되며, 북극 협력의 다층적 접근 방식과 향후 청년 세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심화되었다.

열띤 질의 응답과 문화 교류 모임이 되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매우 열띠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북극 도전 과제, 대체 항만, 북극항로 과제, 아시아 협력, 해양수산물 부산 이전, 기술적 강점·한계, 러시아 협력, 통합 북극정책, 석유·가스와 기후 목표, 원주민 권리, 어업과 해양 생태계, 연구 협력 변화, 북극 인프라, 원주민 참여, 관광과 환경, 광물 개발, 기후변화 대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마케 협력, 원주민 정책 연계, 북극 통제력, 문화 보존, 정책 변화, 사미 원주민 권리, 관광과 환경, 광물 개발, 전통 생계 변화 등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질문을 쏟아냈

다. 강사진은 깊이 있는 설명과 실제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북극 이사회 운영방식’, ‘지정학과 기후의 균형’, ‘극지 탐사선의 연구 기능’, ‘극지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질문은 참가자들의 높은 준비성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또한,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부산 신항과 북항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해양 물류 산업의 운영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사진] 고신대학교 태권도 체험



자료: KMI

극지연구소 방문과 학생 주도 워크숍 발표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KOPRI)에서는 연구 현장과 실험 인프라를 둘러보며 한국의 극지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 기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총 31명의 참가 학생들이 북극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북극항로, 원주민, 안보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학술적 통찰뿐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의 북극 문제 접근 방식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경험을 가졌다.

[사진] 극지연구소 방문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홈커밍데이 개최... 북극 청년 네트워크 강화

마지막 날에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가 개최되어, 올해 아카데미 참가자들과 역대 북극아카데미 수료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단순한 수료식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기수 간의 교류와 연결을 통해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북극 청년 네트워크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북극 협력의 주체로서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각자의 진로와 연구, 북극 관련 활동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며 상호 자극을 받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북극아카데미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와 활동을 보여준 수료생 2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아카데미 기간 동안 북극 분야에 대한 성실한 학문적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가장 모범이 된 참가자 2인이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지속가능한 북극 협력을 위한 청년 세대의 기반 마련

제11회 북극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북극 협력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국제적 수준의 강연과 실무 중심의 현장 체험, 그리고 세대 간 네트워크를 아우른 이번 행사는, 차세대 북극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대학연합은 앞으로도 북극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외교가 연계된 글로벌 협력모델을 확산시키며, 북극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

[사진] 홈커밍데이 및 수료식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북극과 사람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원주민 지식이 중요한 이유

글 김주형 전문연구원
jhkim7664@kmi.re.kr

■ 들어가며

- 북극 원주민의 전통 지식은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이자,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에도 필수적인 자원이다. 과학적 연구와 함께 전통 지식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 2024년 10월 노르웨이 기르콘야르가(Girkonjárga, 키르케네스)에서 열린 “북극 지역 회의(Arctic Regional Gathering)”에서는 북극 전역의 원주민 지식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지식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에서는 북극 지역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주민 전통 지식의 의의와 역할을 살펴 본다.

■ 기후변화와 원주민 전통 지식

- 북극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지역으로,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빙 감소, 생태계 교란, 전통적인 생계 기반의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 북극 원주민들은 순록 방목, 어업, 사냥, 채집에 의존해 왔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북극은 전 지구적 기후 안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의 빙하와 영구동토층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해류는 전 세계 기후 패턴을 조절한다. 북극 빙하의 융해는 해수면 상승과 해양 순환 변화를 초래하여 전 세계 생태계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 북극 원주민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추상적인 과학 통계가 아니라, 그들의 땅과 생계, 삶의 방식을 깊이 흔드는 현실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르웨이 의장국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 플랫폼(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latform, LCIPP)’의 일환으로 북극 지역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북극 전역의 원주민 지식 보유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기후 해법을 논의하며, 원주민 지식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극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원주민 문화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회의에는 알류트(Aleut), 아타바스칸(Athabaskan), 그위친(Gwich'in), 이누이트(Inuit), 사미(Sámi), 마스니(Masni), 텔렝기트(Telengit)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북극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깊은 생태 지식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관행을 통해 살아남고 번영해 왔음을 강조했다.

- 사미 순록 방목인(herder)이자 지역 순록 방목 단체의 부의장인 엘린 매가(Elin Magga)는 기후 변화가 이미 전통적인 사미 생활 방식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강조했다. 그녀는 겨울철의 예측 불가능한 비로 인해 눈 속에 얼음층이 형성되어 순록이 풀을 뜯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불안정한 결빙 상태와 이동 경로 변화는 방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방목인들은 값비싼 보충 사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취약한 공동체에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미 순록 방목인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과 우려를 표시했다.
- 이누이트(Inuit) 공동체의 경우에는, 해빙 조건의 변화가 전통적인 사냥 관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 때문에 집이 가라앉고 있어 원주민의 현실에 맞춘 기후 적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원주민 지식 보유자들은 기후 영향이 미치는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한 이누이트 참가자는 사냥과 항해에 중요한 전통적인 기상 예측이 빠른 환경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전수되어오던 전통적으로 날씨를 예측하던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얼음이 사라지고 있어 북극곰이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오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위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후변화 외에도, 북극 원주민들은 산업 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 풍력 산업, 광업, 선박 통행 증가는 전통적인 토지 이용을 위협하고 민감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회의 참가자들은 기후 행동이 원주민의 권리와 문화 생존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사미(Sámi) 지도자는 하나의 환경 위기를 다른 위기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정의로운 전환은 원주민의 토지 권리와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주민 전통지식을 반영한 기후정책 수립

- 이번 회의에서는 원주민 지식이 기후 적응과 완화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인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북극 원주민들은 세대에 걸친 환경 패턴의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복잡한 지식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지식 체계는 생태계 관리,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회복력 구축을 위한 해법을 제공한다.
- 참가자들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원주민 지식을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LCIPP의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및 ‘카토비체 전문가 위원회(Katowice Committee of Experts)’와의 협력은 원주민 관점을 기후 정책 틀에 통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극 지역 회의에 모인 원주민들은 참여가 단순히 상징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원주민 주도 기후 해법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북극 지역 회의는 긴급한 기후 행동 추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며 종료되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제기구가 북극을 지구 기후 안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취약한 생태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주민 지식을 충분히 반영해, 그들의 실제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제대로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기후 거버넌스 전반에서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참가자들은 북극 원주민들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기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원주민이 주도하는 적응과 완화 노력을 지원하려면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접근 가능한 기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 북극 원주민 공동체의 안녕은 북극 환경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북극 원주민 지식 보유자들은 분명히 밝혔다. 원주민의 지식과 관점, 그리고 권리는 기후 해법의 중심에 놓여야 하며, 이는 사후적으로 고려할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1〉 북극 지역 회의(Arctic Regional Gathering) 회의 전경



자료: <https://arctic-council.org/news/the-important-role-of-indigenous-knowledge-in-global-climate-governance/>

■ 나가며

- 북극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생태 지식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원이다. 이 지식은 지역적 경험과 세대 간 학습을 바탕으로 축적되어, 과학적 연구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성적·세부적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북극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지식을 존중하고, 과학적 지식과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궁극적으로 북극의 미래는 원주민 공동체, 과학자, 정책결정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문화적 권리 존중과 글로벌 기후 정의 실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the-important-role-of-indigenous-knowledge-in-global-climate-governance/>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극지e야기 KPoPS 회역, 조역, 동향 등을 검색해보세요 홈 | 사이트맵 | English

소개 극지 정책 극지 협력 극지 동향 극지 소식

IBRV ARAON

쇄빙선 아라온호

연구와 보급지원 항해로 남북극을 두바다
남/북극지방에서 연구·보급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중인
쇄빙선 아라온호 둘러보기

공지사항 + 국가 정책 및 제도 + SNS소식 < > +

공지	2019 우수 미래 극지연구자 국외 표	2019-01-18	비북극	[중국] 중국 남극과학탐사대 눈보라	2019-01-29
공지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	2018-11-28	비북극	[일본] 미츠비시 산업, 러시아 노바텍	2019-01-29
공지	2017년 발간 북극이사회 자료 국문	2018-10-05	북극	[미국] 미국, ANWR 개발 관련 환경	2019-01-28
공지	2018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	2018-09-20	비북극	[중국] <중국북극발전 및 안보전략	2019-01-28
공지	2018년 극지전문인력양성(북극) 프	2018-09-04	북극	[러시아] 자원환경부, 고난이도-고	2019-01-28

극지연구센터 2019-01-31
대외경제은행, 가스운반선 건조에 185억
두블 대출 예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최근 열렸던 공개업 아시아에서 사
베타(Sabeta) 항 천연가스 사업 발전의 일
원인 신형 북극해 천연가스 왕복운반선 건
조에 대외경제은행(MEB)이 185억 루블 규
모의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외역는 자원개발에 따른 원료 생산량 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
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정보 동향정보 세미나 KMI소식 KMI소개 고객서비스 정보공개 구독 신청 | ENGLISH 🔍 f t in ig yt

동향정보 극지해소식 ☛ 동향정보 | 발간 간행물 | 극지해소식

* 구독 신청

발간 간행물

- * KMI 국제물류워클리
- * KMI 주간 해운시장포커스
- * KMI 주간 주요수산물 수급리포트
-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 * 아시아오션리포트
- * 극지해소식
- * KMI 북방물류리포트
- * KMI 동향분석
- * 항만과 산업
- * KMI 항만 서비스 지표
- * 국제해양장차리포트
- * 해양수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 * KMI 인포그래픽
- *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 * KMI 해운시황보고서
- * Position Paper

* 중간 간행물

극지해소식

번호	호수	발행일	조회 / 다운	파일
99	제134호	2024-04-30	72 (56)	
98	제133호	2024-03-29	116 (78)	
97	제132호	2024-02-29	105 (105)	
96	제131호	2024-01-31	92 (61)	

☛ 극지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정보지입니다.